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3, 649 - 665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의 다차원적 속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행복조건들(tailored happiness conditions)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30명의 남 여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사회요인 등을 영역별로 구분한 후 관련변인들을 메타분석하였다.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아이젠크 성격검사, 통제소망척도, 자기효능감척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척도, 부모양육태도척도, 학교적응척도, 사회적지지 평가척도, 그리고 주관적 행복척도였다. 행복을 예측하는 이들 관련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은 정서적인 안정-불안정 차원과 자기효능감이며, 가족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애정은 잘 변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관심이나 방치의 반대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적극적 개입은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친구의 역할은 강력하지 않았다. 청소년초기에는 교우관계가 행복감을 보완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후기에 나타나는 친구에 대한 과장된 만족감과 의미부여는 지지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행감의 또 다른 지표임이 시사되었다. 행복감을 결정하는 학업성적의 포괄적인 영향력은 독특한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변화양상과 연구의 한계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행복, 청소년, 데이터 마이닝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청송, (43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 Tel: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행복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Diener, Lucas, & Oishi, 2002). 하나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포괄적인 삶의 질과도 관련되는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흔히 안녕감(well-being)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은 세 가지의 하위요인, 즉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적 정서경험이 많으며 부정적 정서경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Diener, 2000). 결국 행복이란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조건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느낌으로 규정되며 행복감으로 측정된다.

주관적인 안녕감은 안정된 개인적 특성인 성격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된다(Steel, Schmidt, & Shultz, 2008; Headey & Wearing, 1989). 특히 외향성과 행복감간의 정적인 관계(E-happiness relations)는 다양한 표집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고(Lu, 1995), 기존 연구들의 메타분석에서도 유의한 관계성이 확인된 바 있다(Lucas & Fujita, 2000). 외향성자들은 사교적 기술이 뛰어나며, 타인에게 협력적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능숙하다(Argyle & Lu, 1990). 따라서 사회적 장면에서 보다 빈번히 강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은 부정적 정서를 증폭시키고,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주관적인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u, 1995). 외부통제의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지만, 내부통제의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정신병리적 취약성이 적다(Thompson & Heller, 1990).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혹은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망, 즉 통제소망과

행복감과의 관계성은 비교적 분명하게 시사된다. 낙관성도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긍정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증진시킨다(Wanous, Reichers, & Hudy, 1997).

행복감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객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해석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낀다(Thompson & Heller, 1990).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지만 긍정적 정서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행복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Cameron, 1995).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아수용과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살아간다고 느끼는 환경지배력이 남녀모두에게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지만(Ryff & Keyes, 1995), 기혼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고 되지는 않는다(King & Napa, 1998). 건강상 문제와 행복감간의 인과성도 분명하지 않다. 낮은 행복감이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건강상의 문제가 행복감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Loscocco & Spitze, 1990). 신체적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수행에 장애가 있으면 행복감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들(Blazer, Hughes, & George, 1992)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게 나타난다(Schroeder, Nau, Osness, & Potteiger, 1999). 실제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지각된 건강상태도 이에 못지않게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Glenn, & McLanahan, 1981).

이러한 행복의 다차원적 속성은 행복을 연구할 때 기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Ryff(1989)는 한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삶의 질을 대표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Keyes(1998)도 단지 불만족의 요인이 없다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지표들이 결핍되면 불행하고 주관적인 안녕감이 충족되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관적 안녕감은 안정된 개인차 변인들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된다(Campbell, 1981). 그러나 이 개인차 변인들도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의 구분조차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Hotard, McFather, McWhirter & Stegall, 1989). 또한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 영향과 관계성은 행복 연구의 결론을 상이하게 하거나 순환론에 빠지게 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Diener(2000)도 기존의 행복 연구를 총체적으로 개관한 후 이러한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 맥락에서 가치관과 욕구 및 동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삶과 생존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달리 집합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가족요소와 함께 사회적 지위 인정이나 대인관계 같은 인간관계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들의 주된 행복 경험을 빈도와 강도차원에서 분석한 구재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도 특히 한국인들

은 개인적 목표의 달성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이나 유대감과 같은 관계적 정서 경험이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Bradburn, 1969), 우리나라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감이 낮고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격이나 개인적 특성의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연령과 특정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Andrews & Withey, 1976; Sauer, 1977), 부모-자녀 관계, 결혼 여부 등 처해진 삶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yan & Deci, 2001).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연령에 따라 행복 하위요인들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Gilligan & Huebner, 2002; 임은기, 2008). 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제에 직면해 있고 스트레스 등 환경적 변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Ryff & Keyes, 1995).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탈동일시와 함께 친구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한다(Steinhausen & Winkler, 2001). 또한 자신과 타인에게 보여 지는 신체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감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전경숙, 정태연, 2009).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역할수행 여부와 만족도(전신현, 1996)가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다. 성적과 입시에 관련된 심리적 압박감과 불행감은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독특한 행동적 특성으로 이어지기도 경우도 많다(정명숙, 이동수, 2008).

행복감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겪으면서 느끼는 역동적인 감정이다(Gilligan & Huebner, 2002). 따라서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복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과 주관적인 안녕감을 구성하는 변인들 간의 조합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행복감을 유발하는 개별적인 환경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Lu & Shih, 1997). 행복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요인 등 단일요인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었다(Lyubomirsky, 2007). 이러한 연구들은 행복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요인 중 어떤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행복감을 결정하는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의 행복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가정과 학교 등의 사회 환경적 변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들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구체적인 행복 조건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복 관련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행복과 가장 관련이 있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내-외향성(Lucas & Fujita, 2000), 신경증적 경향성(Thompson & Heller, 1990), 통제소망(Lu, 1995), 자기효능감(Thompson & Heller, 1990)을 선정하였고, Diener(2000)의 행복 정의에

입각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경험을 모두 측정하였다.

가정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Headey & Wearing, 1989; 구재선, 김의철, 2006)이며,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토대인 학교변인은 학교적응 정도였다.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로 평가하였다. 그 밖의 성, 연령, 학교(중/고교), 성적, 종교,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와의 친밀도, 건강상태, 여가활동, 친구관계, 용돈에 대한 만족도 등이 측정되었다.

청소년기에는 개인적인 특성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중재 방안은 시사성이 특히 크다(Steinhausen & Winkler, 2001). 그러므로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관리라는 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Mommersteeg, 2006). 이에 근거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위험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 행복의 다차원적 속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행복조건들(tailored happiness conditions)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두 개 교에 재학 중인 230명의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학교별 분포는 중학생이 122명(1학년=35명, 2학년= 45명, 3학년= 42명)이고, 고등학생이 108명(1학년= 40명, 2학년

=45명, 3학년= 23명)이었다. 남학생이 127명이고 여학생이 103명이어서 성별 편향을 없었다.

측정도구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Scale ; EPS).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 Eysenck, 1991)를 이현수(1997)가 우리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모두 8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아니오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위차원은 정신병적 경향성을 제외한 내-외향성(E-I)과 신경증적 경향성(N)으로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86과 .82 이다.

통제소망척도(The Desire for Control ; DS). Burger와 Copper(1979)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의 개인차를 측정한다. 총 20문항으로 7점 척도 상(1: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7: 항상 그렇다)에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1이다.

자기효능감척도. Jerusalem과 Schwarzer (199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표현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은 1-‘전혀 아니다’, 2-‘거의 아니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40까지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다.

(1998)에서 사용한 정서빈도검사의 일부 정서를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서로 수정한 김정호(2007)의 정서빈도검사를 사용하였다. 긍정정서는 친밀감, 기쁨, 만족감, 자부심의 4가지 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정서는 불안, 화남, 우울, 죄의식의 4가지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빈도검사는 지난 한 달 동안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1(전혀 없었다)에서 7(항상 그렇다)의 7점 척도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각각 .81과 .71이었다.

부모양육태도척도. Parker(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기초로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인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 각각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아버지 .81, .77, .86, 어머니 .80, .75, .84 이었다.

학교적응척도.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상철(198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총 25문항이다. 4개의 하위 영역은 ‘전반적인 학교적응’, ‘수업시간에의 적응’, ‘교사관계에서의 적응’, ‘교우관계에서의 적응’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이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척도. 조명환과 차경호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와 이창호(1986)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형적 지지, 소속지지, 평가적 지지, 자존감 지지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예/아니오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각각 .84, .79, .78, .86이다.

주관적 행복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주관적 행복은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행복 척도는 자기와 관련된 진술 4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는 $\alpha=.78$ 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은 인구통계적 상태(성, 연령, 학교, 성적, 종교,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용돈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변인과 개인적인 특성(내-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통제소망, 자기효능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경험)과 가정변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친밀도), 그리고 학교변인(학교적응정도)이었다. 그 밖에 여가활동이나 친구관계 등도 이에 포함되었다. 종속변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였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청소년전기와 후기에 다소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가정 하에 자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명척도와 서열척도 그리고 연속척도 등이 혼합된 독립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연속형 종속변인(행복감의 정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독립변인들의 조합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척도(scales)가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에는 다변량통계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Dillon & Goldstein, 1984). 또한 결측치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모수통계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용 프로그램은 Answer Tree 3.1v(200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의 평균 또는 범주에 따른 분산(improvement)의 감소를 이용하는 이지분리(two-way-split) 방식의 CART 방법을 채택하였다. CART 방식은 각 마디의 평균 또는 공통 범주 값을 예측 값으로 사용하므로 마디가 진행될수록 동일한 마디 내의 이질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분산은 감소한다. 독립변인들의 분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5 수준이었으며 자동적으로 집단내의 구간(또는 범주 수)을 변경한 것을 감안해 p 값에 대한 Bonferroni 조정을 거쳤다. 결측치(missing values)는 특정마디에서 예측이 일치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체규칙(surrogate rule)을 설정하였다. 정지규칙으로 최대한의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는 4 수준이었으며,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d node)의 사례 수는 하위집단 모두 각각 5와 2로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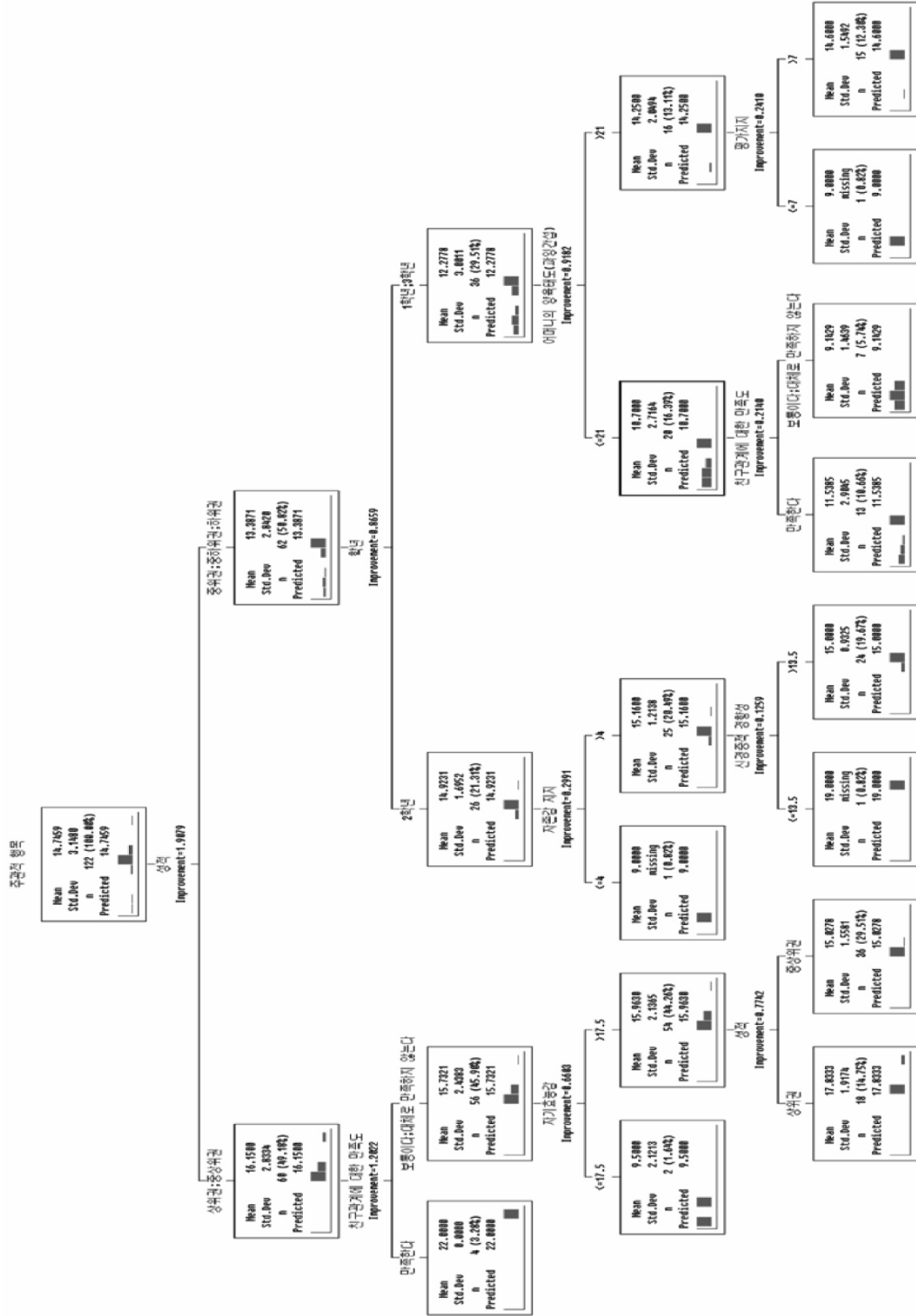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의 행복결정모형

결 과

중학생의 행복결정모형

먼저 형성된 상위마디의 변인일수록 중요하며 자식마디의 특성들이 누적되어 가면서 자동적으로 예측율이 변화된다. 그림 1의 증가분(improvement; 이하 i)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전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학업수행의 최종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이었다.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인 중학생들의 의 행복 평균은 16.15점으로서, 성적이 중위권 이하인 학생의 13.3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중상위권과 상위권)인 학생들이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만족할 경우 행복점수는 22점까지 높아진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데 자기효능감까지 낮다면(17.5점 미만) 행복감은 극적으로 감소한다(9.5점). 그러나

친구관계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고 성적이 상위권에 해당한다면 행복감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성적이 중위권 이하(중위권과 중하위권과 하위권)인 중학생들은 학년이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1학년과 3학년은 2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행감을 느끼고 있었다. 1학년은 top-down 현상으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3학년은 학업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난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일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어머니가 오히려 과잉간섭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을 때 어느 정도 행복감이 높았다. 어머니가 과잉간섭적인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의 친구관계도 불만족스러우면 행복감은 매우 낮다. 가정과 학교에서 밀접한 인간관계의 경험이 적은 중학생들일수록 행복감은 줄어들고 있었다.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학교 2학년 생은 1, 3학년에 비해 조금은 더 행복하였다. 그러

표 1. 중학생 행복 결정모형의 이익도표

Node	Node: n	Node: %	Gain	Index (%)	Node: n	Node: %	Gain	Index (%)
2	4	3.28	22	149.19	4	3.28	22	149.19
12	1	0.82	19	128.85	5	4.1	21.4	145.13
6	18	14.75	17.83	120.94	23	18.85	18.6	126.2
7	36	29.51	15.03	101.91	59	48.36	16.4	111.38
13	24	19.67	15	101.72	83	68.03	16	108.59
20	15	12.3	14.6	99.011	98	80.33	15.8	107.12
16	13	10.66	11.54	78.249	111	90.98	15.3	103.74
4	2	1.64	9.5	64.425	113	92.62	15.2	103.04
17	7	5.74	9.14	62.003	120	98.36	14.8	100.65
19	1	0.82	9	61.034	121	99.18	14.8	100.32
10	1	0.82	9	61.034	122	100	14.8	100

Node는 의사결정나무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Node: 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Node: %는 그 백분율, Gain은 (Resp: n) / (Node : n)의 비율,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나 이 경우에도 자존감을 더 많이 지지받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만(13.5 미만)(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경우) 행복감이 유지되었다.

중학생의 행복모형에 대한 최종결과는 표 1에 서와 같은 이익도표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마디번호 2번은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이며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한 중학생집단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 자료 수는 4이며 전체의 3.28%를 차지한다. Index(%)를 보면, 2번 마디의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중학생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마디에서 보다 149% 이상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누적된 이익지수는 각 마디들이 추가되면서 증감되는 예측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누적된 이익지수의 Index (%)가 100%가 되는 마디까지를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모델이 자동 설정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중학생 행복모델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치기(pruning)를 해야 한다면, 단순 이익지수가 100% 이하가 되는 10, 19, 17, 16, 20, 13의 특성을 가지는 마디를 제외할 수 있다.

각 마디에 의해 형성된 모형의 과잉적합성(over fit)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집단을 단순임의추출법으로 분할하는 교차타당성 평가(10-fold cross validation)를 실시하였다. 위험추정치는 동일한 해당 마디에 포함되어야 할 임의의 두 사례가 다른 마디로 구분될 확률을 각 마디별로 합산한 지수이며, 만약 산출된 값이 위험도표에 있는 위험추정치보다 크면 안정성이 없는 자료로 결론을 내린다. 본 연구에서 빈곤 청소년의 모형은 교차타당도의 위험추정치가 0.8716로서 원래의 값인 0.8123(추정치의 표준오차=0.0342)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행복결정모형

청소년후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평가적 지지의 정도였다. 평가적 지지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인 지지의 하위요인이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지지적 분위기를 느낄 때 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 이러한 평가적 지지는 성적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성적이 상위권인 고등학생은 자신의 학업수행에 관한 평가를 호의적으로 받고 또 수용 받을 때 행복감이 높았다(16.96점). 이 조건의 청소년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고 지지받을 경우 행복감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러한 유리한 행복증진 조건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보다 더 행복감이 높았다(17.25점).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지만 성적이 중상위권 이하인 고등학생들은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성격과 특징이 행복감과 관련이 있었다. 평가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실제적인 학업수행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정서적인 가변성이 많고 불안한 청소년들의 경우 급격히 불행감을 느낀다(8.0점).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행복감이 저하되지 않으나,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이 없었을 경우 불행감을 더 느낀다. 실제 성적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호의적 지지는 예민하고 불안한 고등학생들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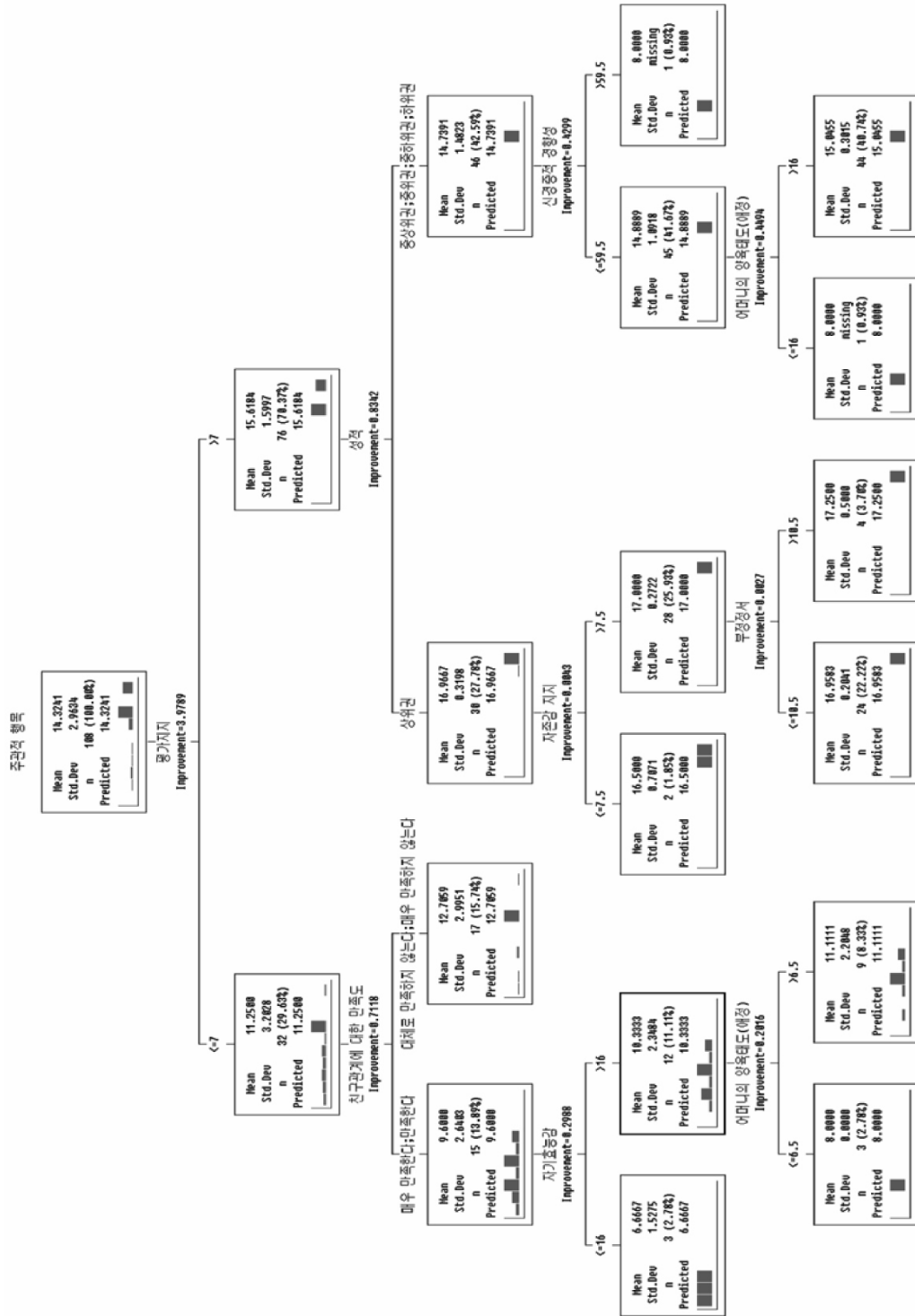


그림 2. 고등학생의 행복결정모형

평가적 지지가 낮으면 행복감을 덜 느끼지만 (11.25점), 친구관계가 만족스러울 경우 오히려 행복감은 더 낮아진다(9.6점).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달리 친구가 행복감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감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다른 지표임이 시사되었다. 지지를 받지 못해 불행한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며 과도하게 만족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아도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기효능감은 실제 평가에 대한 확인과 지지가 전제되는 조건에서만 보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역시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이 없었을 경우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마저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8.0점). 고등학생의 행복모형에 대한 최종결과는 표 2의 이익도표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효율적인 예측을 하는 마디의 특성은 평가적 지지를 높게 받으며, 성적이 상위권이면서 자존감에 관해 지지를 높게 받으면서도 부정정서

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이다. 이 네 가지 특성들의 조합으로 행복감을 예측하면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변인을 다 사용한 것보다 120% 이상의 효율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고등학생 모형의 과잉적합성(over fit)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중학생 모형과 마찬가지로 전체집단을 단순임의추출법으로 분할하는 교차타당성 평가(10-fold cross validation)를 실시하였는데 원래 모형의 추정치는 1.2326(추정치의 표준오차=0.1326)이고, 교차타당도의 위험추정치가 1.6418(추정치의 표준오차=0.3286)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후기의 행복 결정모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초기의 모형에 비해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이 다소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행복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복요인을 비교하는 검증방식이나 행복을 예언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모수적 통

표 2. 고등학생 행복 결정모형의 이익도표

Node	Node: n	Node: %	Gain	Index (%)	Node: n	Node: %	Gain	Index (%)
38	4	3.7	17.3	120.43	4	3.7	17.3	120.43
37	24	22.22	17	118.39	28	25.93	17	118.68
35	2	1.85	16.5	115.19	30	27.78	17	118.45
42	44	40.74	15.1	105.04	74	68.52	15.8	110.47
50	17	15.74	12.7	88.703	91	84.26	15.2	106.41
58	9	8.33	11.1	77.569	100	92.59	14.9	103.81
57	3	2.78	8	55.85	103	95.37	14.7	102.41
41	1	0.93	8	55.85	104	96.3	14.6	101.97
40	1	0.93	8	55.85	105	97.22	14.5	101.53
51	3	2.78	6.67	46.542	108	100	14.3	100

Node는 의사결정나무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Node: 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Node: %는 그 백분율, Gain은 (Resp: n) / (Node : n)의 비율,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계방식이 주로 시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특성과 척도에 구애받지 않는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으로써 측정의 제약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행복과 관련되는 단일요인들의 확인에 치중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상황이나 객관적, 사회적 삶의 조건, 그리고 개인의 정서적 상태 등을 포함한 심리적 변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 결정조건, 즉 행복결정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행복의 위험 혹은 보호요인을 이해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별화된 교육방식을 모색하는데 유용하다. 즉, 맞춤형 행복증진 방안을 시사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잉간섭과 애정 같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에게 방치가 아닌 개입과 관심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가정생활 뿐 아니라, 학교생활, 친구관계에서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Christenson, Rounds, & Gorney, 1992). 청소년기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기처럼 보이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과 긍정적인 관계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Thompson & Heller, 1990).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일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두드러지게 높아지는데(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본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되는 친구요인이 부모를 대

체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지 못했다. 최근에 청소년기라 할지라도 주요한 발달과정이나 과급력이 큰 선택 상황에서는 친구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Rumberger & Thomas, 2000; Trusty & Dooley-Dickey, 1993)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작용하는 친구의 역할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Steinhausen & Winkler, 2001)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이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더 적게 경험해야 한다는 Diener(2000)의 기본 정의와 맞지 않는 결과이다. 김명소 등(2003)은 심리적 웰빙의 6가지 차원 중 '개인적 성장' 차원은 긍정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정서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정호(2006)는 한국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동기가 강할수록 부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의 삶의 만족 이외에 미래 시점의 삶의 동기를 행복 측정에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정서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경우는 우수한 학업수행이나 평가적 혹은 자존감 지지라는 보호적 요인들이 전제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위협요인에 대한 감내는 보호요인의 명백한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다(Borum, 2000). 이러한 불일치는 행복 관련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나 시기적 전환(timinal turn)이라는 임상적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해석일 수 있다.

중학생 행복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생의 경우 성적에 따른 행복감은 교우관계나 자기효능감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실제적인 성적향상으로 이어질 때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이 두 가지 특성은 누적적인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것 같다. 과잉간섭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평가적인 지지수준이 높았다면 행복감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과잉간섭을 호의적인 지지를 동반한 애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친구관계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학업수행 정도에 따라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의 행복결정요인에서도 실제적인 학업수행은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중학생과는 달리 대전제는 아니었다. 자신의 포괄적 측면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자존심을 유지시켜주는 어머니의 애정 어린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이나 신경증적 경향성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변인의 영향력을 역전시킬 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 지지받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조차도 감내하고 수용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은 정서적인 안정-불안정 차원과 자기효능감이며, 가족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이다.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애정은 청소년들에게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관심이나 방치의 반대개념으로 수용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어머니의 적극적 개입은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친구의 역할은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않았

다. 연령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초기에는 행복감에 관해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친구에 대한 과장된 만족감과 의미부여는 지지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행감의 또 다른 지표임이 시사되었다. 행복감을 결정하는 학업성적의 포괄적인 영향력은 독특한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내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학교 등의 환경적 변인들을 활용하는 정보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행복 관련변인의 연령대별 변화양상도 확인하는 부가적인 성과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초기보다는 후기에,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의 불행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것은 호르몬의 변화 등 생물학적 변화와 남성 우위의 사회를 실감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Peterson, Sarigiani & Kennedy,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아버지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특정 양육태도에 아버지가 우세한지, 아니면 어머니가 우세한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야기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이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인식차를 비교하거나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적은 심리적 문제를 촉발, 과장시키는 원인이자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일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학업성

적으로 행복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진로가 결정되는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성적이 개인적 특질의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177-100.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27(3), 67-79.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과 심리 사회적 특성: 3개월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27-39.
- 김정호 (2006). 동기상태이론: 스트레스와 웰빙의 통합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453-484.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345.
- 김정희, 이장호 (1986). 사회적 지지척도제작을 위한 예비적 연구. *행동과학연구*, 8(1), 143-153.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유상철 (1982).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관한 태도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은기 (2008). 한국 노인의 행복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5, 63-82.
- 정명숙, 이동수 (2008). 청소년의 음주영향요인과 음주행위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29-58.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학업중단 청소년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 Argyle, M., & Lu, L. (1990). Happiness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1255-1261.
- Blazer, D. G., Hughes, D. C., & George, L. K. (1992). Age and impaired subjective support: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t one-year follow-up.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172-178.
- Borum, R. (2000). Assessing violence risk among you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63-1288.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 being*. Chicago: Aldine.
- Burger, J., & Copper, H. (1979). The desirability of control. *Motivation and Emotion*, 3, 381-393.
- Cameron, P. (1995). Mood as an indicant of happiness :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 117-12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 McGraw Hill.

- Christenson, S. L., Rounds, T., & Gorney, D. (1992). Family factors and student achievement: An avenue to increase students' succes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7(3), 178-206.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3-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 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llon, W., & Goldstein, M. (1984).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Gilligan, T. D., & Huebner, E. S.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 Glenn, N., & McLanahan, C. (1981). The Effects of offspr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2), 409-421.
- Headey, B., & Wearing, A. (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31-739.
- Hotard, S. H., McFather, R. M., McWhirter, R. W., & Stegall, M. E. (1989). Interactive effect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ocial relationship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21-331.
- Jerusalem, M., & Schwarzer, R. (1992). Self efficacy as a resources factor in stress appraisal. In R. Schwarzer (Ed.), *Self Efficacy : Thought control of action*. Washington D.C. Hemisphere.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37.
- King, L. A., & Napa, C. K. (1998). What makes a life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6-165.
- Loscocco, K. A., & Spitze, G. (1990). Working conditions,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female and male factory work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313-327.
- Lu,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social variable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351-357.
- Lu, L., & Shih, J. B. (1997). Personality and happiness : Is mental health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2), 249-256.
- Lucas, R. E., & Fujita, F. (2000).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on between extraversion and pleasant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39-1056.
- Lyubomirsky, S. (2007).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New York: The Penguin Press.
- Lyubomirsky, S.,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ommersteeg, P. M. (2006). A longitudinal study on cortisol and complaint reduction in burnout. *Psychoneuroendocrinology*, 31(7), 793-804.
- Peterso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 (1991). Adolescent depression :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Rumberger, R. W., & Thomas, S. L. (2000). The distribution of dropout and turnover rates among urban and suburban high schools. *Sociology of Education*, 73, 39-67.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auer, W. (1977). Morale of the urban aged : A regression analysis by race. *Journal of Gerontology*, 32, 600-608.
- Schroeder, J. M., Nau, K. L., Osness, W. H., & Potteiger, J. A. (1999). A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functional ability, physical characteristic, and activity level among older adults in various living settings.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6, 340-349.
- Steel, P., Schmidt, J., & Shultz, J. (2008). R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 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34, 138-161.
- Steinhausen, H., & Winkler, C.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59-280.
- Thompson, M. G., & Heller, K. (1990). Facets of support related to well-being: Qualitative social isolation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in a sample of elderly woman. *Psychology and Aging*, 5, 535-544.
- Trusty, J., & Dooley-Dickey, K. (1993). Alienation from school: An exploratory analysi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6(4), 232-242.
- 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are single item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247-252.

원고접수일: 2009년 7월 13일

게재결정일: 2009년 8월 9일

A Study of Determinants of Happiness on Adolescents

Chung-Song Kim

Department of Youth Science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model of predicting Determinants of Happiness on Adolescents with data mining. The participants were 230 students from 1th, 2th, and 3th grade middle and high school located in Kyonggido whose ages ranged from 13 to 18. The related divisions entered in this research was traits, family, friend and school variab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 Neuroticism as an trait and self efficacy was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feeling of happiness among adolescents. It was found that mother's over protection attitude as well as mother's affection attitude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adolescents, suggest roles of combination of both mothers' attitudes and its combin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for happiness. This findings suggest that friend relationship might be side or byproduct variable in this period.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anticipated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realistic career determination. Limit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s discrepancy of parental attitude and reverse casuality problem of academic achievement and happiness on adolescents.

Keywords: happiness, adolescents, data mining